



영종역사관 어린이 활동지

정답 확인 및 지도용



영종국제도시의 변화

영종국제도시의 역사는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돼요.
전시실에는 선사 시대부터 현재까지 영종국제도시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 1 **목장지도**
2 牧場地圖, Maps of horse ranches
3 **복제본**
보물 제1595-1호
조선시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4 1663년 허목이 지은 목장에 관한 지도책이다. 전국의 목장 소재지, 소와 말, 그리고 목장의 통계와 목장의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책은 허목이 처음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전의 목장지도를 보완한 것으로 첫 장에 진현마정색도가 있고, 이어서 도별, 군별 목장 소재지 지도와 현존 및 폐장 수, 우마필 수, 목장 면적 등에 대한 기록이 있다.

문화재 살펴보기

전시실 속 문화재마다 설명문이 있어요.
설명문을 잘 살펴보면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어요.

① 유물명 ② 한자명 / 영어명 ③ 제작연도 / 소장처(기증자명) ④ 유물설명

★설명+더하기

영종국제도시의 역사는 과거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되었어요. 영종도, 용유도, 삼목도, 신불도 네 개의 섬 중 영종도는 1990년 인천국제공항 건설지로 확정되었고 인천국제공항의 건설과 함께 각종 개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개발 사업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대규모의 선사 시대 유적지와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서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원삼국 시대까지 유적지와 토기 및 석기류, 화살촉, 오수전 등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어요. 영종역사관에서는 이러한 조사를 통해 출토된 수많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전시하며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 신석기 마을

문 서 동 유적

이 유적지는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조사된 신석기 유적 중 가장 큰 규모로, 제1전시실 속 문화재를 살펴보고 **이름과 시대**를 찾아 적은 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문화재 3점**을 찾아 표시해보세요!

문화재의 수를 셀 때는 ‘개’가 아니라 ‘점’이라고 해요!



유물명: **돌칼**
시대: **청동기**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석제 무기의 하나로, 돌을 갈아 만든 단검이에요. 돌칼의 형식은 총 세 가지로 첫째, 손잡이 부분 중간이 잘록한 단(段)의 형태 둘째, 단이 없는 형태 셋째, 손잡이 대신 짧은 스킴배가 달린 형식입니다.



유물명: **가락바퀴(방추차)**
시대: **신석기**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까지 실을 만들 때 사용했던 도구예요. 중앙의 구멍에 막대처럼 생긴 가락을 끼우고 실의 원료를 막대에 이은 뒤 돌리면 섬유에 꼬임이 생기면서 실이 만들어져요.



유물명: **빗살무늬 토기**
시대: **신석기**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로 뾰족한 바닥과 기하학적 문양의 새김무늬가 특징이에요. 당시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미적 감각을 잘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유물명: **그물추(어망추)**
시대: **신석기**

그물에 매달아서 물속에 가라앉게 하는 어로도구예요. 어망추(漁網錘)라고도 하며 주로 강가나 해안의 유적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유물명: **이형 토기**
시대: **원삼국**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에서 출토된 이형 토기예요. 이형 토기는 특이한 형태의 토기를 말하며, 정확한 용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무역 관계의 산물, 오수전

운북동 유적에서 발견된 오수전을 살펴보고 **OX 퀴즈**를 풀어보세요.



1 오수전은 중국 한대(漢代)에 발행된 화폐예요.

O

X

2 당시에는 오수전으로 음식이나 물건을 살 수 있었어요.

O

X

3 오수전은 출현시기가 명확하여 연대를 확인할 수 있고 중국과의 교류를 증명하는 중요한 역사 자료예요.

O

X

★설명+더하기



오수전

오수전(五銖錢)은 중국 한대(漢代)에 발행된 화폐로 무게 단위인 수(銖)를 화폐의 이름에 그대로 사용한 것이예요. 오수전의 무게는 오수(五銖) 약 3.25g이며, 형태는 원형 동전에 네모난 구멍이 있고 오른쪽에 '五(오)'자, 왼쪽에 '銖(수)'자가 배치되어 있어요.

오수전은 출현 시기가 명확하여 이 시기의 연대 결정과 중국과의 교류를 확인해 주는 중요한 자료예요. 하지만 당시는 화폐경제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화폐로서

유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세를 자랑하는 물건으로서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명주항로와 영종도

자주빛 **紫**

제비 **燕**

섬 **島**

자

연

도

제비

가 많은 섬이라는 뜻으로 영종도의 옛 이름이에요.

영종도는 지금의 인천국제공항처럼

주변 나라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공간이었어요.

경원정

이라는 외국 사신을 위한 숙소도 있었답니다.

송나라 사신 서긍이 기록한 **선화봉사고려도경**에는

이 숙소에서 머물던 여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려와 송나라는 항로를 따라 무역 활동을 했어요.

전시실 설명을 참고하여 송나라와 고려의 **무역품 스티커**를 알맞게 붙여보세요!

송나라 수입품



고려 수출품



★설명+더하기



서긍의 초상화 「선화봉사고려도경」의
자연도 관련 부분

자연도는 고려와 송나라의 중간 교류 지점의 역할을 했습니다. 왕래 초기에 두 나라는 등주항로를 이용하여 교역하다가 당시 확장해나가던 요나라의 세력을 피해 명주항로를 이용하게 되었어요. 자연도는 명주항로의 경유지였으며 여러 상인과 사절단이 머무는 숙소 ‘경원정’도 있었답니다.

고려를 방문했던 송나라 사신 서긍은 『선화봉사고려도경』에 자연도에 대한 기록을 남겼어요.

“자연도紫燕島: 이날 신시 정각에 배가 자연도에 정박했는데 이곳은 곧 광주廣州이다. 관사는 산에 의지했고 씨 불이기를 ‘경원정 慶源亭’이라고 하였다. 경원정 곁에는 막집[幕屋]이 수십 간이다. 주민들의 초가집도 많다. 그 산의 동쪽에 섬이 하나 있다. 날아 다니는 제비가 많아 그렇게 이름紫燕島을 지은 것이다...”

이 기록을 통해 영종도의 옛 이름이 제비가 많아 ‘자연도’라 지어졌다는 것과 자연도는 객관과 초가집이 있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해양 방어의 요충지, 영종진!

영종진은 **조선 시대 때** 외세의 침략에 맞서 방어했던 곳으로 현재 영종역사관이 있는 장소예요.

여러 국가가 통상을 요구하며 우리나라를 침략한 **세 가지 대표적인 사건**은 무엇인지 <보기>에서 찾아 빈칸에 적어보세요!

보 기

신미양요

병인양요

병자호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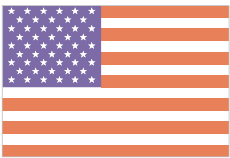
운요호사건

오페르트 도굴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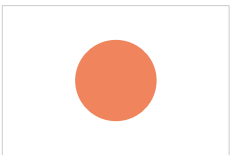
병인양요

1866년 프랑스 함대가 천주교 박해 사건을 빌미로 강화도를 침입한 사건이자 서구 열강이 무력으로 조선을 침입한 최초의 사건이에요.



신미양요

1871년 미국 군함이 통상조약을 요구하며 강화도를 공격한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의 새국정책 및 배외의식은 더욱 견고해졌어요.



운요호사건

1875년 일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을 일으켜 영종진을 포격하였고, 이를 계기로 조선은 강제로 개항을 하게 되었어요.

내 이름은 무엇일까요? !!

안녕!

나는 **양 주 성** 금속비야!

영종진이 있던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나를

만들었다고 전해져. 운요호의 포격으로 불탄

관아를 복원하고, 적군의 침입을

열심히 대비하던 영종 첨절제사

양 주 성 의 뜻을

기리고자 만들어졌지!



첨절제사 : 조선시대 무관 벼슬 직 호칭이에요.
관할 지역의 최고 지휘관이며
'첨사'로 줄여 부르기도 했습니다.

★설명+더하기

양주성 금속비는 영종 **첨절제사** 양주성의 공덕을 기리는 비예요. 고종 12년(1875년)에 일본 군함 운요호는 초지진을 공격하고 돌아가던 중 영종진도 포격하고 점령하였어요. 당시 조정에서는 인천부를 방어영으로 승격 시키고 홍문관 제학이었던 양주성을 영종 첨절제사로 임명하였지요.

양주성은 첨절제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주민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운요호의 포격으로 불에 탄 관아를 복원하며 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답니다. 양주성이 떠나자 주민들은 그의 뜻을 기리고자 늦그릇을 모아 고종 14년(1877년)에 이 비를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원래는 곤돌 고갯마루에 세워져 있었으나 1990년대 초에 영종 동민회관(현 영종동 경로당) 앞으로 옮겨졌다가 2020년에 영종역사관으로 이전해왔어요.

용유 3.1 독립만세운동

일제강점기에 용유도에서도 3.1 독립만세운동이 있었어요.
배재학당을 다니던 학생 조명원이 비밀 항쟁을 위해 **혈성단**을 조직하였고,
혈성단원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쳤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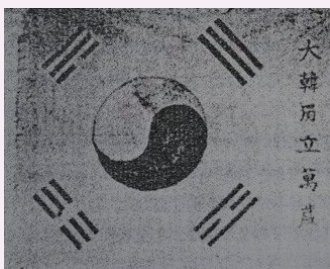
용유 3.1 독립만세운동 태극기



오늘날의 태극기

전시실에는 용유도의 독립운동가 이난의가 사용했던 것을 재현한 태극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네요!
스티커로 **태극기 4괘 모양**을 바르게 붙여보고,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 **나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설명+더하기



용유 3.1 독립만세운동 태극기
(국가보훈처 소장)

1919년 3월 28일 인천 중구 용유동에서는 독립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서울 배재학당을 다니던 조명원이 3.1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한 후, 3월 23일 독립선언서를 품에 품고 귀향해 용유도의 만세 운동에 불을 지피면서 시작되었어요.

조명원은 조종서, 문무현, 최봉학 등과 함께 만세운동을 결의하고 비밀 항일 투쟁 조직체인 혈성단을 만들어 ‘광장에 모이라’는 내용으로 80여 통의 편지를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였지요. 약속한 28일, 조명원 지사를 비롯한 4명은 관청리 광장에서 태극기를 세우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고, 이에 호응해 모인 독립운동가 이난의 등

군중 150여 명이 합류해 일제히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독립운동가 이난의가 숨겨두었던 이 태극기는 손자 이청강의 발견으로 국가보훈처에 기증되었어요. 먹물로 그린 4괘는 좌우가 바뀌어 있는데 이는 당시의 상황이 급박했던 이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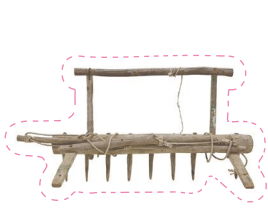
섬마을 사람들의 생활문화

광복 후 섬마을 사람들은 다양한 생업을 하며 살아왔어요.

땅에서는 농사를 짓고, 바다에서는 물고기와 조개를 잡거나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기도 했지요.

전시실에서 문화재를 살펴보고 모양에 맞는 스티커를 붙인 뒤,

쓰임새에 맞게 줄을 그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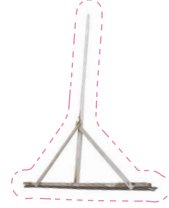
씨레



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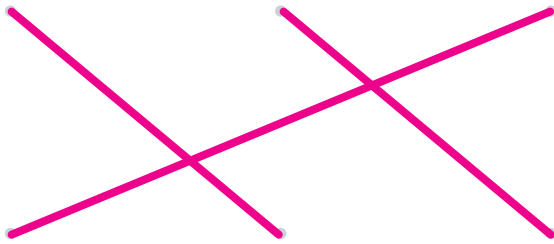
조새



대파



화로와 인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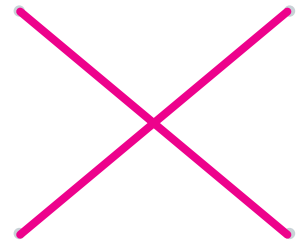


바다의 바위에
붙어있는 굴을 쪼아서
따내고 굴 껍질을 까서
속에 든 살을
파내요.

모내기 직전에
논의 흙덩이를
부수고 판판하게
만드는 데 사용한
농기구예요.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나 조개를
등에 저서 나르는데
사용했어요.

난방과 취사를 위해
숯불을 담아 사용한
도구예요.
불에 달구어
옷의 구김을 펴기도
했어요.



천일염전에서
결정된 소금을
밀어서 모을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설명+더하기

광복 후 영종도, 용유도, 삼목도, 신불도의 주민들은 다양한 생업을 하며 살았습니다. 땅에서는 농사를 짓고 바다에서는 물고기와 조개를 잡거나 염전을 만들어 소금을 생산하기도 하였어요.

이 섬들은 농업, 어업, 염업을 생업으로 하는 반농반어 지역이었으며 조선 후기부터 섬 전체가 개간되면서는 농업을 주된 생업으로 삼아왔습니다. 염전 개발은 섬 주민들의 주산업이었을 정도로 오랜 기간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조업은 선박을 통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경우와 밀물, 썰물을 이용해 건강망으로 고기를 잡는 경우가 있었으며, 갯벌에서 조개와 굴, 낙지 등을 채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제1전시실, 제2전시실을 관람하고 날말 퍼즐을 완성해보세요!

								용	유	3	1	8	문	동
			1영					궁					요	
			종			5자	염	사					호	
			역			연							사	
2선	화	봉	사	고	려	도	4경						건	
			관				5원	삼	6국	시	대			
							정		영					
			9신	미	10양	요			목				1붉	
									장				은	
													간	
								1빛	살	무	니	토	기	
													기	



가로 열쇠

2. 중국 송나라 사신 서금이 고려를 방문한 뒤 지은 책으로 자연도(영종도)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음
3. 영종·용유 지역은 고려 시대부터 바닷물을 끌어서 만드는 ○○이 생산됨
5. 문남동과 운북동 유적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을 통해 영종도가 ○○○시대 및 백제의 문화교류 경유지라는 것을 알 수 있음
7. 용유도의 청년과 주민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외치면서 일본에 저항한 만세운동
9. 미국 군함이 강화도에 침입하면서 일어난 사건
12. 사람이 정착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로 바닥면이 뽕족함



세로 열쇠

1. 네 개의 섬이 합쳐진 영종국제도시의 유물을 찾고 모아서 보존, 전시, 교육하는 곳
3. 제비가 많아서 붙여진 영종도의 옛 이름
4. 고려 시대 영종도에 있었던 외국 사신들을 위한 객관(오늘날 숙소)
6. 조선 시대 영종도와 용유도에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말을 키우는 ○○○○이 있었음
7. 영종도의 백운산에 위치한 사찰로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짐
8. 일본 군함이 강화도에 불법으로 들어와 영종진을 포격한 사건
10. 영종진 재건을 맡은 영종 첨절제사 ○○○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
11. 그릇 표면에 붉은 칠을 한 것이 특징인 청동기 시대 대표 토기

영종국제도시의 문화유산 탐험하기



영종역사관

인천 중구 구읍로 63

영종국제도시의 역사를 시대별로 살펴볼 수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 박물관이에요. 흠어지고 잃어버렸던 문화재를 모아 보존, 전시, 교육하고 있어요!



영종진공원

인천 중구 구읍로(중산동 1952-5)

외세에 맞선 투쟁의 역사를 간직한 공원이에요. 산책로와 바닷길을 따라 옛 영종진의 터를 거닐어보고 숲속유치원 체험공간도 즐겨보세요!



운남동 고인돌

인천 중구 구읍로 63

1962년 인천고등학교 향토반 학생들에게 발견된 고인돌이에요. 영종역사관 야외전시장에서 청동기 시대 대표 문화재인 고인돌을 감상해보세요!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5호

용궁사

인천 중구 운남로 199-1

신라 문무왕 10년(670년) 원효대사가 세웠다고 전해지고, 조선 철종 5년(1854년) 흥선대원군에 의해 다시 세워진 용궁사예요! 용궁사 내에 있는 수월관음도와 느티나무도 함께 살펴보세요!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5호

삼목도 선사주거지

인천 중구 자유무역로(운서동 1830-1)

중서부 내륙의 암사동 유적을 제외한 서해 도서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신석기 주거지예요. 신석기 시대에 사람들의 생활을 짐작해볼 수 있는 유적지랍니다!



선녀바위

인천 중구 선녀바위로 (을왕동 678-188)

을왕리, 왕산 해수욕장 인근의 자연이 만든 기암괴석이에요! 잔잔히 부서지는 파도를 바라보며 선녀바위에 전해지는 전설 이야기도 만나보세요!



영종역사관
Yeongjong History Museum

총괄 신선경 | 기획·개발 송희진, 김수빈 | 감수 김연희 | 디자인 드림출판기획 | 발행연월 2021. 05. Copyright©Yeongjong History Museum.

Yeongjong
History Museum